

# 하반기 출판에 '유럽' 바람 불 듯

## 유럽 역사·철학·문학 소개 많아 ... 국내 저술은 상대적으로 빈약

장기적인 불황의 여파와 월드컵 예선전, 대통령선거 등 각종 '악재'가 겹쳐 있는 탓인지 국내 주요 출판사들은 하반기에 대체로 새로운 기획물을 진행하기보다는 기존 기획의 내용을 채우는 데 주력, 내실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최근까지 호조를 보이고 있는 대중적인 인문교양서의 열기는 하반기에도 지속되리라는 전망이다. 이같은 사실은 본지가 인문·사회, 문학, 문화, 어린이, 자연 등 국내 주요 출판사 3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전 분야에 걸쳐 국내 저서보다는 외국책의 번역이 더 두드러지고, 그 가운데서도 특히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유럽권 책들의 번

역이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역사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는 가운데 세기말을 정리하고 21세기의 대안을 모색하는 작업이 환경, 생태, 대안적 삶을 제시하는 책 등을 중심으로 속속 선보일 것으로 보여 가벼운 읽을거리에 식상한 독자들의 고급한 독서욕구에 부응하리라는 기대다. '새로운 세기를 향한 창'(당대) '생명총서 시리즈'(술) '조금 다르게 살기'(또하나의 문화) 등이 그것. 대형 기획을 찾아보기 힘든 가운데 한길사가 전 100권에 달하는 초대형기획인 '한길컬처북스' 시리즈를 준비하는 한편 '한길 어린이'를 통해 어린이책 출판을 시작할 예정이어서 눈길을 끈다. 미술전문 출판사인 학교재

도 하반기부터 예술분야 전반, 인문분야로까지 넓힐 계획을 밝혔고, 철학전문 출판사인 서광사가 '만화로 읽는 철학사'로 철학의 대중화를 꾀해 이채롭다.

### 인물과 사상을 중심으로 한 인문교양서

상반기에 이어 약진이 예상되는 인문교양서는 인물과 사상, 역사가 여전히 중심 테마로 자리할 것으로 보인다. 시리즈로는 시공사가 세계적 문학·철학·사상가들을 망라하여 소개할 '모던 마스터스' 총서를 준비하고 있고, 이미 출간을 시작한 한길사의 로로로 시리즈와 '위대한 한국인 시리즈'도 계속 발간된다. 새물결의 '유럽을 만들자'

시리즈는 쟁쟁한 유럽의 역사가들이 집필에 참여한 기획.

이밖에도 《복잡성이란 무엇인가》《진보는 죽은 사상인가》《갈 길을 잃어버린 이유》《여성의 역사》《천개의 고원》 등 프랑스의 역사가·사상가들의 저서 번역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여, 영미쪽에서 유럽쪽으로 눈길을 돌린 우리 학계나 지식의 관심과 흐름의 향방을 짐작케 한다. 이슬람 초기부터 12세기 말까지 이슬람의 사상적 흐름을 짚은 《이슬람철학사》는 국내에 처음으로 소개되는 것으로 주목을 끄는 책이다.

번역서에 비해 국내 저서는 상대적으로 빈약하다. 사계절이 새롭게 기획한 '한국문화' 시리즈에서 《한국인인 누구인가》《한국인과 한국문화》 등의 책

### 대중적인 인문교양서 열기는

하반기에도 지속되리라는 전망이다.

### 국내 저서보다는 외국책의 번역이

두드러지고, 그 가운데 특히

###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유럽권 책들이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가벼운

### 읽을 거리에 식상한 고급 독자들에게

### 부응하는 시리즈물과 대형기획도

준비되고 있다.

담론을 형성했던 '동아시아'에 대한 관심은 담은 《동아시아인의 동양인식》《동아시아 구비서사시의 양상과 변화》 등이 각각 백영서·조동일 교수에 의해 집필, 출간될 예정이다. '한권으로 읽는' 시리즈의 성공으로 유명세를 탔던 박영규씨가 상반기에 출간한 《고구려본기》에 이어 《백제본기》를 출간하고, 이밖에 《조선시대상업발달사》《탕평책 연구》《제주도 생산기술의 사회사》처럼 각론화한 역사연구의 결과물들도 선보인다.

### 국내 중견작가 소설 많이 선택

문학분야에서는 상반기 《아버지》《선택》《인간의 길》로 이어진 국내소설 강세가 그대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신진작가들의 소설보다는 중견급 작가들의 소설집과 장편소설이 많이 나온다. 문학과지성사가 60세 이상 우리나라 대가급 시인과 소설가·비평가들의 작품과 작가론을 담아낸 '우리문학 깊이 읽기'를 시도한다. 홍성원·최인훈 편이 하반기에 출간될 예정. 이밖에 박상룡·박범신·현길언 등 중견작가들이 오랜만에 작품을 선보이고 이문구·임철우·박시정·이인화·윤대영·이순원, 김형경·박창호·최성각 등의 소설도 출간을 기다리고 있다. 조세희의 《하얀 저고리》가 단행본으로 선보이고, 명진출판이 기획한 '전문가 소설'은 한국컴퓨터에 재직중인 강태진의 《사이버 로망》을 출간할 계획.

외국소설에서는 영미권 소설보다는 프랑스 소설이 많이 출간될 예정이어서 우리 출판 전반에 걸친 '유럽'에 대한 관심이 소설

### 인문·사회

도서명	저자	출판사	도서명	저자	출판사
갈 길을 잃어버린 이유	알랭 핀켈코르트/최혜란	당대	중심의 상실	한스 젠들 마이어/박재경	문예출판사
독립의 선언	위드 진/김민웅	당대	미술사의 역사	우도 쿨터만/노성두 외	문예출판사
한반도통일과 한미관계론	이삼성	당대	한국인이라 누구인가	최준식 외	사계절
진보는 죽은 사상인가	자크 아탈리 외/홍세화	당대	한국인과 한국문화	최준식 외	사계절
남북한 민족주의의 비교연구	박호성	당대	사람이 재미있다 사람이 알고 싶다	최광일	사계절
여성의 역사	조르주 뒤비 외	새물결	예수	토마스 복음서/라즈니쉬 해설	예문
천개의 고원	질 들리츠 외	새물결	서양과 조선	강재인/이규수	학교재
현대여성과 자아정체성	앤소니 기든스	새물결	조선시대 상업발달사	고동환	지식산업사
미디어 문화	더글라스 켈너	새물결	조선시대의 성리학	윤시순	지식산업사
예술·사회	조지 닉키	문학과지성사	탕평책 연구	김성윤	지식산업사
시간과 이야기	폴 리코르	문학과지성사	서정적 자아	김현선	지식산업사
세계화·정보화·민주주의	강정인	문학과지성사	장미와 이카르스의 비밀	오이겐 드레버만/고원	지식산업사
역설·변증법 그리고 체계	케인스/이명준	문학과지성사	교육이란 무엇인가	박문희	지식산업사
백년전의 한국정치사상과 문화사상	최영	문학과지성사	로마인 이야기 6	시오노나나미/김석희	한길사
현상학과 정치철학	김홍우	문학과지성사	성서이야기-신약편	이원두	한길사
동아시아인의 '동양' 인식	백영서 외	문학과지성사	유럽 학문의 위기와 선험적 현상학	후설/이중훈	한길사
동아시아 구비서사시의 양상과 변화	조동일	문학과지성사	문명과 질병	시거리스트/황성익	한길사
차별과 연대	김필동	문학과지성사	부정의 변증법	아도르노/홍승용	한길사
한국의 근대국가 형성과 농민	박명규	문학과지성사	봉건사회	블로크/한정숙	한길사
프로이트전집 10권	프로이트/임흥빈 외	열린책들	시몬 베유	가브리엘라 피오리/이창실	한길사
고전은 힘이다	김정위 외	명진	드레퓔스	할라즈/황의방	한길사
역사의 종말	페리 앤더슨	창작과비평사	국도와 민족생활사	최영준	한길사
혁명 이후	아리프 릴릭	창작과비평사	조선중기 도교사상사	김나필	한길사
소련 경제사	알렉노브	창작과비평사	우리말 찾아보기 사전	김정섭	한길사
사회과학논문집	김동춘	창작과비평사	백제본기	박영규	웅진
의열단 연구	김영범	창작과비평사	제주도 생산기술의 사회사	고광민	웅진
눈으로 보는 책의 역사	안춘근·윤형두 편	범우사	쿤의 주제들	조인래 편역	이대출판부
담론 윤리의 해명	위르겐 허버마스/이진우	문예출판사	말의 질서와 국가	남경희	이대출판부
덕의 상실	A.매킨 타이어/이진우	문예출판사	인간의 본능과 정체성	루이스 브레제/홍강의	이대출판부
감성과 이성	K. 레저러스 외/정영목	문예출판사	이슬람 철학사	앙리 코르방/김정위	서광사
주역 계사전 풀이	남희근/신원봉	문예출판사	윤리학에 있어서의 형식주의와 실질적 거처	윤리학 M.셀러/이을상 외	서광사
방법서설/생신지도를 위한 제 규칙	데카르트/이현복	문예출판사	한국인의 종교개혁:무교	차우송	서광사
성찰/자연의 빛에 의한 전리탑/프르코렘	데카르트/이현복	문예출판사	현대의 철학적 인간학	K. 론렌츠/강학순	서광사
현대를 읽어라	M.마페졸리/박재환 외	문예출판사	흙의 인과론	탁석산	서광사
복잡성이란 무엇인가	에드가 모랭/양운덕	문예출판사			

문화·문학

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리 르도네, 나탈리 샤르트, 미셀 뤼노, 레몽 장 등의 소설이 출간될 예정인데, 《장엄호 텔》 《황금열매》 《가브리엘 대천사》 《영원한 계곡》 《로즈 벨리 로즈》 《이야기들》 《쓰레기 왕》 《벨라 B.의 환상》 등이 그것이다.

문학 외에 문화관련서 기획은 대체로 저조한 편인데, 그 중에서 미술분야의 출간이 가장 활발하다. 《고암 이응로》를 위시한 작가론과 함께 《한국 추상미술 40년》 《서양화 읽는 법》 같은 교양서도 선보인다. 《성숙기의 아동문학》 《자서전의 규약》 같은 새로운 분야의 문학이론서도 번역되고 사물놀이패의 전설적인 인물인 《김용배의 삶과 윤희회》도 출간을 기다리고 있다.

성공담 중심의 자전 에세이가 물러간 비소설 서가에는 품격높은 산문집들이 자리할 것으로 보여 반가움을 더한다. 《연암 산문선》 《윤경렬 산문선》, 전 총보대 철학과 교수로 농사꾼이 된 윤구병의 《잡초 농사도 농사다》 등 국내 저서 외에 바샤르 산문집 《기슴 뛰는 삶을 살아가라》 크리스티앙 보뱅의 산문집 등이 기획되어 있다. 이밖에 무라카미 하루키가 처음으로 쓴 르포집인 《언더그라운드》나 여성학자 박혜란의 중국문화 체험기인 《변경에서의 일년》도 흥미로운 읽을거리로 관심을 끈다.

한편, 어학·컴퓨터·건강·여행 등 실용서 부분의 강제는 여전히 전망이 있지만 이렇다 할 만한 기획은 눈에 띄지 않는다. 동일한 아이템을 가지고 어떻게 차별화하느냐는 것이 이 분야 출판사들이 안고 있는 고민일 터인데, 한 출판사의 담당자는 보다 세분화되고 전문화되는 추세로 나아가지 않겠느냐고 전망한다.

불황의 여파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분야가 어린이책이다. 여전히 정통문예물과 학습서를 겸한 교양물이 주종을 이룰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전망. 그래서인지 예림당·보림·웅진·계몽사·보리·길벗어린이·산하 등 어린이책 전문출판사들의 하반기 출간계획 가운데 굵직한 기획들은 언어능력·상상력·창의력 등 특정 능력개발에 초점을 둔 것이 많다. '올바른 습관을 들이기 위한 기획동화', 언어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인 '모두다 All Together', '창

도 서 명	저 자	출판사	도 서 명	저 자	출판사
박상룡/심석구/이순원 소설집	박상룡/심석구/이순원	문학과지성사	쓰레기 왕	레몽 장	세계사
손가락 사이로 무지개를	박시정	문학과지성사	장엄호텔	마리 르도네/이재룡	열림원
불의 얼굴	임철우	문학과지성사	황금열매	나탈리 샤르트/남수인	열림원
박청원 장편소설	박청원	문학과지성사	렉싱턴의 유령	무라카미 하루키	열림원
김형경 장편소설	김형경	문학과지성사	폭풍의 언덕	에밀리 브론테/김남	열림원
이순원 소설집	이순원	문학과지성사	돌아온 히드 클리프	하이어 사렌트/김남	열림원
보이지 않는 얼굴	현길언	열림원	The Partner	존 그리섬	시공사
달뜨면 창	김석중	열림원	The Art of Breaking Glass	매튜 홀/이종인	시공사
사이버 로망	강태진	명진	X-파일 항체	케빈 앤더슨/최용훈	시공사
흰소가 끄는 수레	박범신	창작과비평사	한국연구의 지형	안치운	문학과지성사
히안 저고리	조세희	세계사	장경렬 비평집	장경렬	문학과지성사
최학/조갑상 소설집	최학/조갑상	세계사	남진우 비평집	남진우	솔
최수철/박태균 엮은소설	최수철/박태균	세계사	성숙기의 아동문학	마리아 니콜라예바/김서정	문학과지성사
겨우 존재하는 인간	정영문	세계사	자서전의 규약	필립 드 쾨느/윤진	문학과지성사
초원의 향기	이인화	세계사	한국 추상미술 40년	이일 외	재원
나는 카메라다	윤대녕	세계사	고암 이응로	김복기	재원
최성각 소설집	최성각	솔	미술과 혁명	최태만	재원
망고강산	이문구	솔	미술과 인체	박영택	재원
카프카 전집 (잠언, 유고)	카프카	솔	현대한국화론	강선하	재원
가브리엘 대천사	미셀 뤼노/임선옥	세계사	오페라 감상	조성진	대원사
라모의 조카	디드로/황현산	세계사	'빛깔 있는 책들'		대원사
벨라 B.의 환상	레몽 장/이인철	세계사	(경북공/무대미술 감상법/월출산/통과의례음식/화해/금산사/뮤지컬 감상법/한국의 약속)		
영원한 계곡	마리 르도네/강금희	세계사	서양화 읽는 법	조용진	사계절
로즈 벨리 로즈 마리	마리 르도네/김정란	세계사	김용배의 삶과 윤희회	김현선	지식산업사
그 여자와들 보낸 며칠간	크리스티앙 보뱅/김정란	세계사			
이야기들	자크 스테른베르/이재룡	세계사			

의성 교재 '상상력을 키우는 그림책' '생활 습관 길러주는 동화책' 등이 그것이다.

그림책의 경우 전래동화나 우리 전통문화에서 소재를 찾은 것들이 많이 눈에 띄는데, 보림출판사가 '까치 호랑이 시리즈'(전 20권)를 올 하반기 안에 완간하고 외국어판을 발간한다는 계획과 함께 전래동화를 소재로한 그림책도 기획, 출간 준비중이다. 이밖에 웅진출판사 유아팀이 준비중인 《우스개 옛이야기》 《30나라 30이야기》도 전래동화를 소재로 한 것이고, 어린이책으로는 《세계전래동화》(푸른나무) 《옛이야기 보따리》(보리) 9·10권도 나온다.

한국 아동문학계의 성과 발굴 소개

유아용 그림책에 번역서의 비중이 높은 반면 어린이용 동화책에는 창작동화가 많다. 이 가운데는 신진 동화작가의 작품도 있지만 특히 한국 아동문학계의 성과물들을 발굴해 출간하려는 시도가 적지 않아 반갑다. 이원수의 《도깨비 마을》, 손춘익의 《해맞이 마

을의 어린 뉘시꾼》(이상 웅진) 외에 월북시인 백석의 동화 《개구리네 한술밥》(길벗어린이)이 그런 책이다. 이밖에 '한국 현대아동문학대표작가 대표작선(보리)이 기획됐다. 올해 안에 1차로 1950년 이전의 아동문학작품을 10여권으로 묶어 펴낼 계획이다.

성인출판물에서 이는 바람은 어린이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는데, 유난히 역사·문화 관련서가 많은 것은 그 한 예다. 《유네스코 지정 세계 문화유산 나들이》 《고려이야기》 《문답으로 이어지는 세계사 5000》 《사물놀이》 등이 출간 예정이다.

국내저서 개발에 힘 쏟아야

우리 출판의 가장 낙후한 분야로서 자연과학의 위치는 올 하반기에도 크게 달라지는 바가 없을 듯하다. 기획물 자체가 그다지 많지 않기도 하지만 출간 예정인 책들 대부분이 번역서라는 실정은 우리나라 자연과학출판의 현주소를 다시 한번 절감케 한다. 전과과학사에서 기획한 '한국유전학회 총서'

미있는가》 등.

출간계획을 통해 미리 살펴본 우리 출판계의 하반기 동향에서 출판계 전체를 들쭉이게 할 만큼의 거대한 흐름은 엿보이지 않는다. 그만큼 출판물들이 다양해지고 있다는 말이다. 이에 대해 한 출판인은 "장기적인 불황을 경험한 출판인들이 '불황'이 현실이고 '호황'이 이상현상이라는 것을 받아들인 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한다. 각 출판사가 이제 장기 불황에 대응하는 나름의 방법을 체득하고 자사의 실정에 맞는 독창적 기획에 승부를 거는 경향이 많아졌다는 얘기도. 반가운 현상이다. 모처럼 일어난 인문교양서의 호조도 고무적이다. 보다 진지한 독서를 요구하는 이 분야 책들의 열기가 인기를 잃어가는 출판매체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을 부추겨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러나 국내 필진의 개발보다는 번역에 쉽게 매달리는 최근의 경향은 우리 출판계가 뛰어넘어야 할 또 하나의 산이다. — 박남정 기자